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김경화
단국대학교

Effects Of Collective Art Therapy on The Depression,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the Subjective Happines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Gyoung-Hwa Kim
Dank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S군 S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65세 이상의 치매노인 총 28명을 대상(실험군 14명, 대조군 14명)으로 2020년 11월 14일 부터 2021년 3월 6일 까지 주1회씩 16회기를 걸쳐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뢰도 검증, 빈도분석, 독립표본 T-test, 2×2 혼합변량분석, 대응표본 T-test,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치매노인들의 우울과 의사소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회상요법, 집단미술치료, 치매노인, 우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Abstract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effect of reminiscence-based collective art therapy on the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among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study was conducted on 30 volunteers with dementia aged 65 or older attending the S Weekly Care Center located in S-gun as subjects during the period between November 7, 2020 and January 2, 2021 with one session week for a total of 12 sessions. The SPSS 24.0 statistics program has been used for various data analyses, including confidence verification, cross tabulation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3×2 multi-variant analysis, and the intergroup independent sample T-test between the groups.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llective art therapy based on reminiscence therapy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with dementia. Second, the collective art therapy based on reminiscence therapy is effective in promot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the elderly with dementia. Third, the collective art therapy based on reminiscence therapy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subjective sense of happiness among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se study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have provided an informative basic data on the reminiscence-based collective art therapy.

Key Words reminiscence therapy, collective art therapy, elderly with dementia, depression, communication, self-efficacy, subjective happiness

Received 11 Oct 2021, Revised 20 Oct 2021
Accepted 27 Oct 2021
Corresponding Author: Gyoung-Hwa Kim
(Dankook University)
Email: kghwa40@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오늘날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7%에 달하며, 2025년에는 20.3%, 2060년에는 43.9%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1]. 이와 같이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로 인한 노인의 고독 및 소외, 신체적 기능 저하, 감소된 일상생활수행능력, 사회적 역할 상실 그리고 의료비 급증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성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치매를 들 수 있다[2].

치매는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 외상이나 혹은 질병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질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언어, 지능, 학습, 등의 인지기능과 정신기능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이다[3]. 치매 관련 증상은 기억력 저하, 지남력 상실, 성격변화 등으로 시작하여 인지장애, 일상생활수행의 어려움, 반복행동, 배회, 불안과 초조,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증상이 더욱 심각해져 경련, 쇠약, 의사소통 불능 등이 나타난다[4]. 이로 인해 치매노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점점 단절과 고립되면서 외로움과 우울한 감정 등이 증가된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복합적인 증상을 보인다[5]. 더욱이 치매노인들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기술의 결핍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6], 타인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되어 상호교류가 차단되고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끼며 고립감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7]. 또한 치매노인들의 우울증상은 격리감, 실패감을 동반 체험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고립감과 무기력 등에 시달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8].

치매노인들의 치료는 크게 의학적 치료와 심리적 치료로 분류될 수 있는데 약물치료만이 완전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치매 노인을 위한 심리적 치료의 중요성과 다각도의 공동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여러 방면의 심리적인 치료법을 시도해 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심리치료 중 미술치료는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되어 자기 자신의 감정표현 능력이 부족한 치

매노인에게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방어나 통제가 적고 상징적인 이미지에 의해서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9]. 또한 시지각과 손의 협응작용을 촉진시켜 두뇌활동을 활성화시키며, 현재의 기억과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선, 색채, 형태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편안감과 성취감,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되어 인지적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0].

특히 집단미술치료는 기억력장애와 문제행동을 갖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감각적인 미술매체와 반복적인 미술활동이 두뇌활동을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제한적인 언어능력을 갖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미술작업을 통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자발성과 성취감을 키워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고[11],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드러내고 억눌려 왔던 감정표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음으로써 개인치료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잠재적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12].

집단미술치료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므로 잠재적 긴장 혹은 우울·불안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작품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증진시키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자기 통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13]. 이러한 집단미술치료는 치매노인들로 하여금 남은 생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해주고,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회복을 통해 집단 상호간의 적응력이 개선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였고[14], 미술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흥미 유발과 자발성 향상으로 감정을 표현해서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꾀하여 치매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5].

회상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정신과정으로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욕망에 의해서 동기화되며 과거에 겪었던 경험 중에서 의미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15]. 회상요법은 노인들이 경험한 과거 사건들 중 유쾌한 경험을 기억해내어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기억을 공유함으

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법이다[16]. 이러한 회상요법을 통해서 치매노인의 잔존해 있는 기억력을 되살려 현실감을 제공하며 그림을 통한 대화로 표현활동과 언어기능을 통해 인지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7].

회상을 주제로 한 집단미술치료는 즐거운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리고, 억압되어 있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게 도우며, 표현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대인관계의 사회 상호작용의 증진을 도모해주며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아통합을 이루도록 해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8].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 우울 감소, 시각적 자기표현 및 언어적 자기표현능력의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19],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치매노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재구조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타인과의 유대관계형성을 통해 격려와 수용이 이루어져서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치매노인은 우울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치매노인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증진 및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6일 까지 주1회씩 16회기를 걸쳐 진행되었고, S군에 소재한 S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1) 신경과전문의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자 (2) 65세 이상인자 (3) 일반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3단계 이상 지시 수행이 가능한자 (4) 참여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2.2 조사도구

2.2.1 우울

우울 측정도구는 Zung[20]이 개발한 우울측정 도구 20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점 Likert척도로 하였으며, 거의 없다 1점에서 매우 많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697로서 적정 이상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2.2.2 의사소통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Holden과 Sinebruchow[21]의 연구에 사용된 의사소통 도구로서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0~4점으로 측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843로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2.3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와 Maddux[22]에 의해 개발되었고, 서현미[23]가 노인에 맞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런 편이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30로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2.4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측정도구는 Lyubomirsky와 Lepper[24]가 고안하고 윤지선[25], 임지숙[26]에서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913로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3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2020년 11월 14일 부터 2021년 3월 6일 까지 주1회에 16회로 진행하였다.

집단미술치료의 각 회기는 도입, 활동, 나누기, 마무리 등 4단계로 구성하였다. 도입 활동 단계는 인사하기, 1주 동안 즐거웠고, 재미있었던 일 이야기 나누기, 간단한 신체활동 및 노래부르기, 주제에 관한 소개로 10분, 활동 단계는 오늘의 주제에 관한 안내, 본 활동에 대한 기대감 높이기, 작품 만들기로 50분, 나누기 단계는 자신과 타인의 작품 감상하기, 자신의 작품 설명하기, 타인의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나누기로 20분, 마무리 단계는 집단원 전체에 대한 진행자의 긍정적지지 및 공감대 형성하기, 작품에 대한 느낀 감정을 공유하기, 정리정돈 후 인사하기로 10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시간은 90분 내에서 다소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주제	내용	목적
1	당신은 누구십니까?	명함 만들기를 통하여 자기 소개하기	친밀감 형성, 흥미유발
2	태어난 연도와 띠	12가지 동물 중 태어난 연도와 자신과 가족의 띠를 상징하는 동물 이야기하기	자기탐색, 인지기능 및 지남력
3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의 모습 표현하고, 동네이름 등 이야기하기	집단응집력, 심리적 안정
4	그 시절 나의 꿈	잡지를 활용해 콜라주로 꾸며보기, 어릴적 꿈을 이야기하기	자기이해, 시공간 인식
5	나의 신혼이야기	결혼 첫날밤 추억, 그날처럼 마음 가져보고 이야기하기	자아통합, 심리적지지, 자존감 향상

6	나와 나의 가족 소개해요	잡지 속의 나 또는 나의 가족 소개할 수 있는 비슷한 사진 오려서 붙여보고 이야기하기	인지기능 및 지남력, 자기표현능력 향상
7	가을 코스모스 꾸미기	가을의 추억, 가을 코스모스 꾸미고 이야기하기	인지기능 향상, 심리적 안정
8	물고기 가족화	물고기 가족화를 실시한 후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기	인지기능 및 지남력, 자기표현능력 향상
9	토닥토닥	손을 대고 본뜬 다음 색칠하고 오리기, 스케치북에 붙힌 후 스티커를 붙여보기, 토닥토닥 위로를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이야기 나누기	자존감 향상, 정서적 안정
10	추석명절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친밀감 형성, 인지기능, 협동심 향상
11	따르릉, 여보세요	옛날 전화기 도안 색칠하고 꾸미기, 전화를 누누에게 가장 받고 싶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기	인지기능 및 지남력 향상, 정서적 지지
12	생일상 차리기	전단지지를 이용한 멋진 생일상 꾸미고, 각자 좋아하는 음식, 과일 표현하고 이야기하기	자기에 향상, 행복감 형성
13	나에게 주는 상	자식 또는 남편 등 뒷바라지한 노고를 표현하고 상장 꾸미기	자존감 향상, 자기인식, 자기수용
14	꽃 그림으로 본 나의 인생 돌아보기	10~60대 까지 꽃잎 색칠하고, 살아왔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자기인식, 자아통합
15	과일 바구니	과일바구니를 꾸민 후,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하기	협동심 향상, 즐거움, 타인과의 유대관계 형성
16	소망나무	나무를 꾸미고 원하는 위치에 소망하는 것과 버리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협동심 향상, 자기수용, 자아통합

2.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충남 S군 S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65세 이상의 치매노인 28명을 대상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확률 할당하여 실험전과 후에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며,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미술치료의 적용 전·후의 우울감,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진행하였다.

첫째, 참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다.

셋째, 사전점수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종속변수에 대한 미술치료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2x2 혼합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별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사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 간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집단	실험군		대조군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	5	35.7	5	35.7
	여	9	64.3	9	64.3
연령	60대	2	14.3	2	14.3
	70대	4	28.6	4	28.6
	80대	4	28.6	4	28.6
	90대 이상	4	28.6	4	28.6

학력	무학	4	28.6	4	28.6
	초졸	5	35.7	5	35.7
	중졸	5	35.7	5	35.7
혼인 상태	미혼	1	7.1	1	7.1
	결혼/동거	2	14.3	2	14.3
	이혼	3	21.4	3	21.4
자녀 수	사별	8	57.1	8	57.1
	없음	1	7.1	1	7.1
	1명	1	7.1	1	7.1
	2명	4	28.6	4	28.6
	3명	2	14.3	2	14.3
경제 수준	4명 이상	6	42.9	6	42.9
	일반	4	28.6	4	28.6
	경감	6	42.9	6	42.9
종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4	28.6	4	28.6
	기독교	4	28.6	4	28.6
	불교	2	14.3	2	14.3
입소 기간	무교	8	57.1	8	57.1
	1년 미만	8	57.1	8	57.1
	1년 이상~2년 미만	3	21.4	3	21.4
	2년 이상~3년 미만	2	14.3	2	14.3
	3년 이상	1	7.1	1	7.1
합계		14	100.0	14	100.0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녀 수, 경제수준, 종교, 입소기간의 비율은 같도록 구성하였고, 실험군 14명과 대조군 14명의 구체적인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9명(64.3%)으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70대, 80대, 90대 이상이 각각 4명(28.6%), 60대가 2명(14.3%)으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초졸과 중졸이 각각 5명(35.7)이고, 무학인 4명(28.6%)이며, 혼인상태는 사별이 8명(57.1)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 수는 4명 이상이 6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수준은 경감이 6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가 8명(57.1%)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입소기간은 1년 미만이 8명(5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사전점수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인 우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의 사전점수에 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와 같이 나타났다.

〈표 3〉 사전점수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사

집단		N	M	SD	t	p
우울	실험군	14	50.357	7.023	-.175	.862
	대조군	14	50.786	5.860	-.175	.862
의사소통	실험군	14	12.929	5.784	-.607	.549
	대조군	14	14.143	4.753	-.607	.549
회화	실험군	14	5.286	1.899	.601	.553
	대조군	14	4.857	1.875	.601	.553
인지력과 인식	실험군	14	5.857	2.507	-1.413	.170
	대조군	14	6.929	1.328	-1.413	.173
의사소통 태도	실험군	14	1.786	2.577	-.618	.542
	대조군	14	2.357	2.307	-.618	.542
자아 효능감	실험군	14	35.143	11.030	.343	.735
	대조군	14	33.857	8.681	.343	.735
주관적 행복감	실험군	14	2.571	0.829	.101	.920
	대조군	14	2.536	1.032	.101	.920

우울, 의사소통과 하위요인들,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의 사전점수에 대하여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5$). 따라서 모든 종속 변수의 사전점수에 대해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3.3 집단과 시점의 상호작용 효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과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시점이 상호작용하여 미술치료의 효과가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2) × 시점(2)의 혼합변량분석(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집단과 시점이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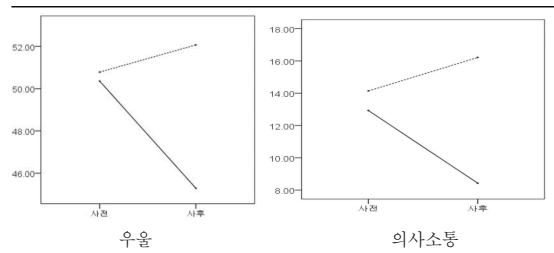
종속변수	시점	집단	M	SD	개체-내		개체-간
					시점	시점*집단	
우울	사전	실험군	50.357	7.023	2.712	7.647*	2.487
		대조군	50.786	5.860			
	사후	실험군	45.286	8.306			
		대조군	52.071	5.553			
의사소통	사전	실험군	12.929	5.784	3.153	23.087***	5.234*
		대조군	14.143	4.753			
	사후	실험군	8.429	5.667			
		대조군	16.214	5.767			
회화	사전	실험군	5.286	1.899	3.694	21.488***	2.449
		대조군	4.857	1.875			
	사후	실험군	3.214	2.155			
		대조군	5.714	1.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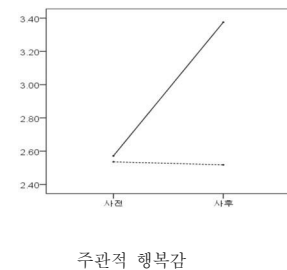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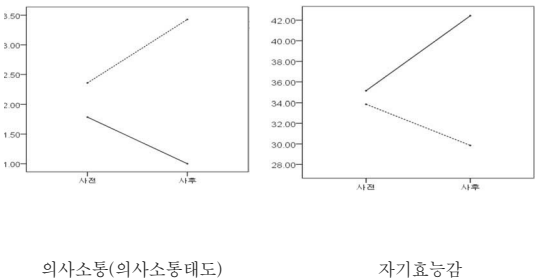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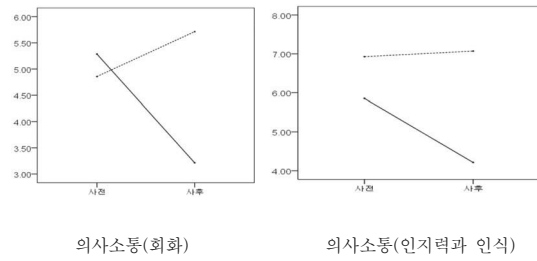
인지력과인식	사전	실험군	5.857	2.507	7.455*	10.566**	6.737*
		대조군	6.929	1.328			
사후	실험군	4.214	2.517				
	대조군	7.071	1.940				
의사소통태도	사전	실험군	1.786	2.577	0.163	6.876*	3.311
		대조군	2.357	2.307			
	사후	실험군	1.000	1.840			
		대조군	3.429	2.681			
자기효능감	사전	실험군	35.143	11.030	0.571	6.733*	4.507*
		대조군	33.857	8.681			
	사후	실험군	42.429	12.264			
		대조군	29.857	9.122			
주관적 행복감	사전	실험군	2.571	0.829	6.933*	7.578*	2.538
		대조군	2.536	1.032			
	사후	실험군	3.375	0.777			
		대조군	2.518	0.683			

* $p < .05$ ** $p < .01$ *** $p < .001$

우울과 의사소통 및 하위요인들,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등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시점과 집단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점*집단의 상호작용효과의 F값은 우울에서 7.647($p < .05$), 의사소통에서 23.087($p < .001$), 하위요인인 회화에서 21.488($p < .001$), 인지력과 인식에서 10.566($p < .01$), 의사소통태도에서 6.876($p < .05$), 자기효능감에서 6.733($p < .05$), 주관적행복감에서 7.578($p < .05$)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의 경우는 집단의 효과에서도 F값이 5.234($p < .05$)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인지력과 인식에서는 시점의 효과에서 F값이 7.455($p < .05$), 집단의 효과에서 F값이 6.737($p < .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경우도 집단의 효과에서 F값이 4.507($p < .05$)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주관적 행복감에서는 시점의 효과에서 F값이 6.933($p < .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점*집단의 상호작용 그래프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대조군(점선), 실험군(실선)

[그림 1] 미술치료의 시점*집단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우울의 경우 실험군은 사전점수에 비해 사후점수가 확실히 낮아져서 우울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조군은 우울의 사후점수가 사전에 비해 오히려 더 올랐다. 의사소통과 하위요인인 회화, 인지력과 인식, 의사소통의 해석은 설문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이므로 그래프의 방향과 반대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실험군의 사전점수 보다 사후점수가 확실히 낮게 변하였으므로, 의사소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대조군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주관적행복감 역

시 실험군에서는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확실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조군에서는 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3.4 시점 간 차이와 집단 간 차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별 종속변수의 사전, 사후 점수 간 차이와 사후점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test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4.1 집단별 시점 간 차이

① 실험군의 시점 간 차이

실험군의 종속변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한 대응표본 T-test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실험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결과

종속 변수	시점	N	M	SD	t	p
우울	사전	14	50.357	7.023	2.552	.024*
	사후	14	45.286	8.306		
의사소통	사전	14	12.929	5.784	8.808	.000***
	사후	14	8.429	5.667		
회화	사전	14	5.286	1.899	9.352	.000***
	사후	14	3.214	2.155		
인지력 과인식	사전	14	5.857	2.507	4.249	.001**
	사후	14	4.214	2.517		
의사소 통태도	사전	14	1.786	2.577	1.808	.094
	사후	14	1.000	1.840		
자기 효능감	사전	14	35.143	11.030	-1.821	.092
	사후	14	42.429	12.264		
주관적 행복감	사전	14	2.571	0.829	-3.490	.004**
	사후	14	3.375	0.777		

*p<.05 **p<.01 ***p<.001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종속변수는 우울(t=2.552, p<.05), 의사소통(t=8.808, p<.001)과 하위요인 중에서 회화(t=9.352, p<.001), 인지력과 인식(t=4.249, p<.01)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t=-3.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경과에 의해 실험군의 우울은 더 낮아졌고, 의사소통과 회화, 인지력

과 인식의 부정적 인식도 더 낮아졌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대조군의 시점 간 차이

대조군의 종속변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한 대응표본 T-test 결과는 다음의 <표 6>와 같이 나타났다.

<표 6>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대응표본 T-test 결과

종속 변수	시점	N	M	SD	t	p
우울	사전	14	50.786	5.860	-1.113	.286
	사후	14	52.071	5.553		
의사소통	사전	14	14.143	4.753	-1.633	.126
	사후	14	16.214	5.767		
회화	사전	14	4.857	1.875	-1.449	.171
	사후	14	5.714	1.816		
인지력과 인식	사전	14	6.929	1.328	-.366	.720
	사후	14	7.071	1.940		
의사소통 태도	사전	14	2.357	2.307	-1.916	.078
	사후	14	3.429	2.681		
자기효능감	사전	14	33.857	8.681	2.348	.035*
	사후	14	29.857	9.122		
주관적 행복감	사전	14	2.536	1.032	.094	.926
	사후	14	2.518	0.683		

*p<.05 **p<.01 ***p<.001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종속변수는 자기효능감(t=2.348, p<.05)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조군의 자기효능감은 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3.4.2 사후점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종속변수의 사후점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한 독립표본 T-test 결과는 다음의 <표 7>와 같이 나타났다.

<표 7>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종속 변수	집단	N	M	SD	t	p
우울	실험군	14	45.286	8.306	-2.541	.017*

	대조군	14	52.071	5.553		
의사소통	실험군	14	8.429	5.667	-3.603	.001**
	대조군	14	16.214	5.767		
회화	실험군	14	3.214	2.155	-3.320	.003**
	대조군	14	5.714	1.816		
인지력과 인식	실험군	14	4.214	2.517	-3.364	.002**
	대조군	14	7.071	1.940		
의사소통 태도	실험군	14	1.000	1.840	-2.795	.010*
	대조군	14	3.429	2.681		
자기효능감	실험군	14	42.429	12.264	3.077	.005**
	대조군	14	29.857	9.122		
주관적 행복감	실험군	14	3.375	0.777	3.101	.005**
	대조군	14	2.518	0.683		

*p<.05 **p<.01 ***p<.001

모든 종속변수의 사후점수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우울(t=-2.541, p<.05)의 경우 대조군이 실험군 보다 더 높았으며, 의사소통(t=-3.603, p<.01)과 하위요인인 회화(t=3.320, p<.01), 인지력과 인식(t=-3.364, p<.01), 의사소통태도(t=-2.795, p<.05)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대조군이 실험군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t=3.077, p<.01)과 주관적 행복감(t=3.101, p<.01)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회상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통계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선정된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점수는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집단과 시점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변화가 없거나 더 악화되기도 하였다.

셋째, 모든 종속변수의 사후점수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험군의 사후 점수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단미술치료는 치매노인들의 우울과 의사소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을 감소시키고[17,27,19],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28]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기효능감 향상시키고[29], 주관적 행복감 향상시킨다 [17,9,30,28,31]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는 집단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지체계를 형성하게 되어 우울을 완화하고, 집단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의사소통이 증진되며, 작품 활동을 통해 성취감 증진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기효능감의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꾀하여 치매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회상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의사소통 및 자기효능감 증진시키며, 주관적 행복감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치매노인의 치매 정도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집단미술치료에 있어서 치매노인들의 흥미와 기능을 고려해서 다양한 주제와 매체사용 및 다양한 예술 양식과 접목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치매노인의 경우 미술치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을 표현하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술치료가 노인요양시설, 종합병원,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해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만을 제시하였다. 추후에는 질적인 연구를 포함한 통합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하여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후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우울,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변인 외에도 다양한 상황적 변인들을 추가해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References

- [1] 통계청(2020), 고령자통계, 2020.
- [2] 박운제(2017), “치매환자 특성의 추이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호, pp.202-209.
- [3] 단정와, 이제모(2006), “집단요법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의사소통증진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제33권, pp.71-102.
- [4] 권대순(2013), “노인 요양시설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및 공격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양원영, 전순영(2011),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의사소통과 정서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제18권, 제6호, pp.1303-1323.
- [6] 정향미(2003),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미술치료 매체에 관한 연구”, 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자격증 청구논문.
- [7] 양한연(2008), “집단미술치료가 치매 노인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2호, pp.107-129.
- [8] 김서현, 홍선미(2018), “명상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우울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제25권, 제6호, pp.729-748.
- [9] 하혜미, 최은영, 전종국(2012), “회상요법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 거주 경증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제19권, 제2호, pp.405-421.
- [10] 윤영옥, 김동연(2006),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집단미술치료의 효과성 연구,” 미술치료연구, 제13권, 제1호, pp.115-141.
- [11] 조영숙(2008), “감각활동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기억력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정현희, 인은지(2017), “실제적용 중심의 노인미술 치료(2판)”, 서울: 학지사.
- [13] 박선영, 김선희(2014), “사이코사이버네틱 모델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제21권, 제1호, pp.165-182.
- [14] 진성희(2009),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제9권, 제1호, pp.153-172.
- [15] Quackenbush SW, Barnett MA.(1995), “Correlates of Reminiscence Activity among Elderly Individuals”, INTL J of Aging & Human Development, vol.41, No.2, pp.15-20, 1995.
- [16] Fry, P. S.(1983), Structured and unstructured reminiscence training and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Clinical Geront. vol.1, pp.15-37.
- [17] 김영숙, 도복늬(2005), “회상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제12권, 제2호, pp.483-500.
- [18] 김안젤라(2003), “회상을 주제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보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김선명(2015),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및 자기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제22권, 제2호, pp.603-634.
- [20] Zung. W. W. K.(1974), “Depression status inventory and self-rating depression scale note 1974, in Ward, M.J. & Lindenman, C.A., Instruments for measuring nursing practice and other health care variables,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Vol. 1, pp.200-204,
- [21] Holedn, U. P., Sinebruchow. L.(1979), “A Validation of Reality Orientation Therapy for Use with the elderly, Dementia and. Communication, Vol. 28, No.2, pp.99-105.
- [22] Sherer, M., Maddux, J. E., Merc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 Rep, vol.5, 663-671.
- [23] 서현미(2001),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4] Lyubomirsky, S. & Lepper, H.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6, No.2, pp.137-155.
- [25] 윤지선(2012), “통합적 치료프로그램이 주간보호센터 노인의 주관적 행복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9권, 제1호, pp.121-141.
- [26] 임지숙(2004), “노년기의 자기고양적 편향, 생애사건 해석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김현민, 전순영(2012), “회상을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제19권, 제5호, pp.1289-1312.
- [28] 박현철(2009), “기억력회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의사소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제9권, 제1호, pp.1-21.
- [29] 안솔잎(2016), “사이코사이버네틱 모델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사회 경증치매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오영이, 이숙민(2016),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산업진흥연구, 제1권, 제2호, pp.79-86.
- [31] 이기문(2014), “회상요법 집단미술치료가 요양원 거주 경증치매노인의 정서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경 화 (Gyoung-Hwa Kim)



- 2019년 9월 ~ 2021년 10월 현재 : 단국대학교 강사
- 2018년 6월 ~ 2019년 10월 : 두드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 2015년 9월 ~ 2018년 8월 : 단국대학교 박사 졸업
- 2009년 9월 ~ 2012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석사 졸업
- 관심분야 : 노인, 장애인, 미술치료
- E-Mail : kghwa40@naver.com